

## AIP인터내셔널, 마이크로큐닉스 · 화성토탈과 판재 · 소모품 시장 공략

### 전국 12개 유통망 확보

AIP인터내셔널(주)(대표 김춘희)가 지난 7월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판재 및 소모품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다. 회사 소개와 제품 프리젠테이션, 질의응답으로 순으로 진행된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춘희 AIP인터내셔널(주) 대표이사과 사업파트너로 선정된 이병열 마이크로큐닉스(주) 대표이사, 최유진 화성토탈(주) 대표이사, 우제선 화성메이저(주)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사업파트너 계약에 따라 AIP인터내셔널은 무역 수출입 업무를 총괄하며 신제품을 발굴하고 종합적인 영업관리를 맡게 된다. 마이크로큐닉스는 주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필름과 CTP장비 및 판재, 잉크젯 장비 및 소모품의 판매를 담당하며, 화성토탈은 주로 PS판과 CTP판을 판매하게 된다. 이 외에도 AIP인터내셔널은 수도권 7개, 부산 2개, 대구 1개, 광주 1개, 대전 1개 등 총 12개의 유통망(Sub-dealer)을 확보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영업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1차적으로 화광 판재 공급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춘희 AIP인터내셔널 대표는 “아그파코리아에서 근무하는 등 30년 가까이 인쇄분야 외국법인에서 쌓아온 경력과 축적한 인적 네트워크 및 제품 지식으로 창업을 하게 됐다”며 “주요 인쇄 소모품인 판재와 필름을 우선적으로 발굴, 판매하면서 인쇄 전반으로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IP인터내셔널에서는 우선적으로 PS판, CTP판, CTP장비, 필름, 잉크젯 프린터 및 미디어 등을 수입, 보급하며 이 외에도 기타 무역 관련 업무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차로 품질과 공급이 안정적인 중국산 화광 포지티브 PS 판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급을 앞두고 네가티



맨위. 개업식 행사중 AIP직원의 기념촬영모습(좌측이 김춘희 대표이사) 위. 기자간담회에서 김춘희 대표이사가 회사 및 제품소개를 하고 있다.

브 PS 판의 품질도 테스트하고 있다.

화광판재는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화광(Huaguang)이란 브랜드로 더욱 많이 알려졌다. 럭키그룹 제2필름공장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PS판 및 CTP판 생산업체이면서도 중국 유일의 이미지 세터용 필름 생산업체다. 또한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모든 오프셋 판은 Polychrome Corp.USA의 기술제휴에 의해 생산되며, Thermal CTP판은 독일 FOGRA협회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신뢰성이 높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